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이씨티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 양곡부두의 신항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박차 및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차질 없이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17일(월)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이씨티시(KCTC) 컨소시엄((주)케이씨티시 등 2개사)을 선정하였다.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은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및 「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북항에 있던 양곡부두의 대체부두를 신항에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2년 2월 케이씨티시 컨소시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이 사업을 제안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적격성조사 등을 거쳐 2022년 12월에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후 제3차 제안공고*(2022. 12.)와 1단계 사전 자격심사(2023. 2.), 기술·가격부문 서류평가(2023. 4.)를 거쳐 최초 사업제안자인 케이씨티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해양수산부는 5월 중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을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주상호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으로 양곡부두의 신항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부산항 북항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현 북항 양곡부두 부지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장소로 활용되는 만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부산항 북항 재개발에도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에도 철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책임자	과 장	주상호 (044-200-5960)
		담당자	사무관	허경희 (044-200-5965)



□ 추진배경

-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및 「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 북항 양곡부두의 신항 남권 서측 이전 추진

□ 사업 개요

- (최초제안자) (가칭)부산신항양곡터미널 주식회사
 - * 출자자 구성 : (주)케이씨티시(항만운영투자자) 70%, (주)한양(건설참여출자자) 30%
- (사업규모) 5만DWT 1선석, 부지 75,000m², 싸일로 19만톤, 운영건물 등
- (총사업비/무상사용기간) 1,911억원 / 30년
- (사업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BTO방식(민간제안)

« 위치 및 평면배치 »

